



구례 사성암에서 '봄'



하동 송림 '여름'



왕시루봉 '가을'



광양 무동산에서 '겨울'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사시사철 변해가는 섬진강의 아름다움

섬진강 시리즈를 선보여온 한국화가 송만규 화백.
그는 1993년부터 전북 순창 섬진강가에 동지를 틀고 섬진강이 전하는 아름다움과 편안함, 그리고 부드러운 정경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송 화백은 "묵인수행처럼 이어지는 새벽강가의 운무와 물방울들, 바람결, 사시사철 변해가는 섬진강의 환경에 취해 섬진강변 외엔 곁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섬진강만 그리는 이유에 대해선 "한국화의 소재들이 그윽하게 풍기는 먹 향과 먹은

23일 소리문화전당서 송만규 '섬진팔경' 32점의 대작 선보여

은하게 흡수하는 한지, 예리하고 무디게 펼쳐지는 붓놀림이 섬진강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여 섬진강의 그림이 빛을 발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애정은 송만규식 '섬진팔경'의 사계절에 드러난다. 입실 봄어섬과 구담마을, 순창 장구목, 구례 사성암과 지리산에서

내려다본 풍경, 광양 무동산, 하동 평사리와 송림 공원 등은 그림 같은 자태를 뽐낸다. 그가 이곳을 배경으로 한 그림들로 23일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섬진팔경' 전에는 섬진강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섬진강물에 온 생애를 부여하며 사는 자연의 풍요로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때로는 새벽강의 고요함으로, 때로는 해발 1,212m의 지리산 왕시루봉에서 바라본 장대함으로 섬진강을 오롯이 그려낸 송만규 화가.

작가는 섬진강경을 사계절동안 걷고 또 걸으며 온 몸으로 체득한 그때 느낀 물결의 흐름을 특유의 섬세함으로 되살려 32점의 대작을 완성했다. 그의 팔경은 길이 2m 정도의 작품이 주를 이루지만, 어떤 것은 11m부터 24m의 대작까지 다양하다.
송 화백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심한 듯 곁을 내어 주는 섬진강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았다고 한다. "계단식 논에서 흐르던 물 한 방울이 논두렁 사이로 흘러 물줄기가 되고, 그 물줄기가 도랑을 이루며 결국에는 강물이 되고 계곡이 되죠. 강물은 혼자서

흐르지 않고, 늘 주변을 끌어안으며 묵묵히 흘러간다"며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꼽기도 했다.
그러면서 "갈래 갈래로 흘러진 물줄기는 허투루 흐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 갈급한 이들에게 고귀한 선물을 선사한다며, 섬진강의 이러한 기운까지도 작품에 담고자 했다"고 전시 소회를 밝혔다.
섬진강 500리의 길을 화폭에 담아낸 송 작가와의 대담은 오는 31일 전당 갤러리 O, R에서 진행되며, 전시는 4월 5일까지 무료로 만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권병호

실험적 음악 4인4색



김경희



박태영

국립민속국악원 '국악타파' 24일 무대 프로젝트그룹 '풍류지악' 초청 공연



송지훈

국립민속국악원의 상설공연 '토요국악초대석-국악타파'가 오는 24일 오후 3시 예음헌에서 펼쳐진다.
이날 무대는 '프로젝트그룹 풍류지악의 4인4색 MEMORY'로 꾸며진다.
박태영, 김경희, 송지훈, 권병호로 구성된 풍류지악은 판소리의 원형을 보존하며 타 장르 악기와의 융합을 통한 크로스오버를 선보이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이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을 모토로 다양한 실험적 음악들을 선사할 예정이다.
풍류지악의 대표 겸 국악타파기 연주자 박태영은 부여군 충남국악단 상임단원과 국립민속국악원 객원단원을 역임하고, 타악그룹 풍남풍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판소리 김경희는 서울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 및 우즈베키스탄 International Music Festival에서 1등을

수상했다. 그는 소담소리아트 대표로 판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피아니스트 송지훈은 국내 재즈 밴드로는 최고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쥘레인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관페라 이순신, 창극 아비방연, 오르페오전의 피아노 세션으로 참여하며 국악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권병호는 대한민국 2세대 하모니카 연주자이자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멀티악기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하모니카에서 플루트, 아코디언, 아리쉬 휘슬 및 민속악기까지 다양한 악기 연주를 소화하는 세션 플레이어다. MBC복면가왕,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영화제작소 '소공녀' 상영
전주영화제작소는 촬영·편집 전문가와 함께 개봉작 한 편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다양한 시선으로 영화보기'를 24일 진행한다.
3월 선정작은 전고운 감독의 장편 데뷔작 '소공녀'로 유니크한 캐릭터 미소를 통해 답답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만드는 탄탄한 스토리로 관심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춘 세대들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진한 공감 받고 있는 작품이다.
상영 후에는 본 작품 소공녀를 비롯해 죽곡왕 등의 작품에서 편집을 맡았던 고봉곤 편집기사와 함께 '소공녀'의 영화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한국화 교실 회원전

25일까지 박물관 시민갤러리서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는 25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시민갤러리에서 '제1회 한국화 교실 회원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년간 20명의

한국화 교실 회원들이 배우고 연습해온 결과(사군자 등)물들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한국화 교실'은 지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박물관의 다양한 자원(자

연과 특별전 등)을 활용한 작품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이철량 화백(전북대 명예교수)이 한국화 교실에 1년간 재능기부로 참여해 오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열린의회, 알찬의정" 순창군의회



제23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 회 기 : 3.22 ~ 4.02 (12일간)
- 주요안건
 -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
 -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순창군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021, 1043 fax)063)652-6782
<http://www.sunchangcouncil.go.kr>